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고,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이 6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KBS홀에서 열렸다. '함께, 모두의 미래(Together for Our Tomorrow)'라는 주제로 국가보훈부(보훈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엔참전국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말,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감사선물 전달 순으로 이뤄졌다. 먼저 참전 영웅들을 깨우는 유엔군 나팔수의 기상나팔과 국방부 군악대대 나팔수의 개식 나팔에 더해 국방부 팡파르대 연주가 행사 시작을 알렸다. 6·25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유엔참전용사를 비롯해 참전용사 명예 선양과 동맹 강화에 이바지한 8명에게는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사천 국군묘지, 국가관리묘역 지정

경남 사천지역 출신 6·25전쟁 전몰군경 등이 잠들어 있는 '사천 국군묘지'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9월 11일 "사천 국군묘지를 국가가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천 국군묘지는 경북 영천 보현산 일대 공비소탕작전과 강원도 횡성북방지구 전투 등 각기 다른 전투에서 투혼을 발휘하다가 전사한 사천지역 출신 6·25전쟁 전몰군경 등 44명을 1953년 10월 15일 사천시(당시 사천군)에서 사천공항 인근 사천읍 구암리 야산에 안장하면서 조성됐다. 사천시는 국가를 위



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유족 의견을 고려해 2021년 이전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묘지 조성 71년 만에 8월 사천시 종합장사 시설인 사천 누리원 내 별도 묘역이 조성됐다.//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권, 국방부서 보훈부로 이관

1955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대표 상징공간' 국립서울현충원이 개원 70년을 맞아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보훈부)로 이관됐다. 보훈부는 7월 23일 서울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다음 날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이관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공간으로 현재 19만5200여 기가 모셔져 있다. 정부는 국립묘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서울현충원을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



기 위해 지난해 6월 5일 국가보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훈부 이관을 결정했다. 보훈부는 이관을 기념하고자 7월 25일 서울현충원 현충문에서 강정애 장관과 이희완 차관, 주요 간부와 서울현충원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관 기념행사를 했다.//

2024 UFS 연습



'2024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8월 29일 종료됐다. 한·미는 연습을 통해 동맹의 힘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9일 "8월 19일부터 진행된 이번 UFS 연습은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과 최근 전쟁 양상 등 현실적인 위협을 상정해 내실 있게 진행됐다"며 "한·미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을 시행하는 등 연습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13~16일 UFS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을 시작으로 19~23일 정부연습과 연계한 1부 연습을, 이어 26~29일 2부 연습을 전개했다.//

괴산호국원 제2묘역 준공

국가보훈부(보훈부)는 괴산호국원 제2묘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념하는 준공식을 7월 12일 개최했다. 지난 2019년 10월 개원한 괴산호국원은 전체 안장 규모 2만3700여 기 중 현재 2만1300여 기가 차 있는 상태다. 이를 사전에 예측한 보훈부는 안장 능력 확충을 위해 2022년 4월 제2묘역 조성에 들어갔고, 최근 공사를 완료했다. 총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제



2묘역은 부지 4만5000㎡, 2만3000여 기 규모의 봉안시설로 조성했다. 제2묘역 완공으로 괴산호국원은 제1묘역과 함께 총 4만 7000여 기의 안장 능력을 갖추게 됐다.//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2482명 '명비' 세웠다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2482명 이름이 모두 새겨진 '명비'가 우리 정부의 예산 지원 아래 현지에 세워졌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8월 5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市)에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명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명비는 지난해 7월 말 우리 정부의

예산 9000만 원을 지원받아 완성됐다. 기존 참전기념비 옆에 자리한 명비에는 전사자를 포함해 모든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에티오피아 6·25전쟁 참전용사협회 등은 6·25전쟁 당시 3518명 이상의 에티오피아 군인이 참전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윤은기 본회 정책자문위원, 백소회 회장에 취임



충청 출신 주요인사 모임인 '백소회(百笑會)'는 8월24일 뉴서울호텔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윤은기 본회 정책자문위원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하고 취임행사를 가졌다. 윤 신입회장은 "백소회가 충청의 덕목인 관용과 융합창조의 DNA를 살려 충청의 화합과 나라발전의 동력이 되는게 시대적 사

명"이라고 강조했다. 백소회는 1992년 12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당시 임덕구 전 국회의원, 정진태 비상기획위원장, 주돈식 조선일보 편집국장(전 문광부장관), 고흥길 중앙일보 정치부장(전 특임장관), 남재두 국회의원 등이 창립식을 가져 32년째 매월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이영하 회원, 2개의 서울 문학상 수상



본회 이영하 회원 (예 중장, 공사22기, 다사랑월드 이사장)이 9월 3일 서울시 오페라 하우스(신도림역 부근)에서 詩歌흐르는 서울 월간문학

회 24년 전반기 시상식에서 특별창작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9월 7일에는 서울시와 중랑구 등 20여개 단체가 후원하고 한국문학과 사단법인 문학그룹 샘문이 주관한 2024년 한국문학상 공모전에서도 특별창작상을 수상했다.//

공사총동창회, 동문친선당구대회



공사총동창회는 8월 24일 80여명의 동문들이 서울 신논현역 근처 현대당구장에 모여 친선당구대회를 가졌다. 경기는 신전자 에버리지 기준으로 현장에서 조추첨을 통해 선후배가 한팀이 되어 진행되었다. 단판 승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여

우승, 준우승, 하이런상이 결정되었으며 우승조는 다음과 같다. 3구 A조 우승 29기 김경환 조, 3구 B조 우승 15기 차정열 조, 4구 A조 우승 19기 이성균 조, 4구 B조 우승 27기 김기택 조, 3구 하이런상 26기 김정식, 4구 하이런상 15기 김평람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공군 ROTC장교회, 하계입영훈련 후보생 격려방문

공군ROTC장교회(회장 김석찬)는 8월 9일 공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하여 학군 53기 1년차 후보생의 하계입영훈련을 격려했다. 김석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7명은 훈련단장 및 참모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2025년에 공군학군단은 4개 대학 추가를 통해 총 11개로 증가하는 바 공군학군통합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교육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령에서 소위까지 현역 선배장교 14명과 함께



53기 후보생들과 '선배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MZ세대에 맞춰 준비한 다양한 위문품을 제공했다.//

학사장교골프회, 자체골프대회



공군학사장교골프회(회장 송명성)는 9월 4일과 11일 2차에 걸쳐 강릉기지 체력단련장에서 각각 1박2일 일정으로 108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체 골프대회를 개최

했다. 학사장교골프회는 매년 가을철에 시니어부와 주니어부로 나누어 행사를 실시하여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공군사랑회, 호우피해 농가 피해복구비 전달



공군사랑회(회장 서용길) 임원진 7명은 8월13일 호우피해를 입은 충북 현도면을

방문하여 3명의 피해농가에 40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전달했다.//

이원혁 회원, '역사의 지평선에서' 발간



본회 이원혁 회원 (예 중위, 학사55기)이 최근 '역사의 지평선에서'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듣고 보고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5·16, 12·12 등 우리나라 현대사의 큰 굴곡과 한국전쟁시의 주요장군들의 활약상 등을 소개했다.//



광주지부

광주지부(지부장 손정문)는 9월 7일 지부회원 20여명이 1전비 VIP 주기관에서 열린 '제45회 Space Challenge 2024 in 광주' 행사에 동참했다.//



강릉지회

강릉지회(지회장 황용기) 지회장 외 2명은 6월 25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제18전투비행단 초청으로 부대를 방문하였다. 이날 참석한 지회 임원 일행은 부대 현황을 청취하고, 부대와 강릉지회와의 유대강화 방안에 대해 환담했다.//



사천지회

사천지회(지회장 박용갑) 7월 22일 지회 임원 및 회원 26명이 3훈비가 주관하는 '사천시공군전우회 부대초청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3훈비 기지내의 위령비 참배 및 기념사진 촬영 후 대회의실로 이동하여 부대소개 및 공군전력에 대한 기초설명을 청취하고, 기타토의 시간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사천시민 피해 해소방안 등을 토의했으며, 부대내 '과

학화 통제소'와 '격납고'를 견학하고 기지 외곽을 투어 후 행사를 마쳤다.//

수원지회

수원지회(지회장 송요정)는 8월 9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장의 초청으로, 지회 회장단 및 원로 회원 중심으로 20여명이, 제10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부대 견학 및 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기적인 회합으로, 현역과 예비역 간에 지속적인



교분을 나눌 수 있는 회합의 기회를 갖기로 약속하였다.//

전주지회

전주지회(회장 오청수)는 7월 27일 전주요흥초등학교 강당에서 회원 13명이 단합 및 친선을 위한 족구경기를 진행하고 정기 월례회를 가졌다.//



창원지회

창원지회(지회장 이성배)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창원지회 주관으로 광주지부와 경남지역(창원, 사천, 진주) 지회간 동서화합과 교류협력강화를 위한 영호남 친선교류행사를 실시했다.



제1일에는 광주지부 회원 12명과 경남지역 지회 12명이 사천체력단련장에서 친선운동을 하고, 만찬시에는 경남지역 회원 16명 더 참석한 가운데 이계훈 중앙회장과 3훈비

단장이 함께 참석하여 격려해주었다. 제2일에 광주지부회원 12명은 자체 운동을 한 번 더하고 귀가했다.//

철원지회

철원지회(회장 구한서)가 8월 19일 철원군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장학금 100만 원을 이현중 군수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구한서 회장은 "전우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시회



청주시회(지회장 이군신) 8월 30일 청주시지 체력단련장에서 지회산하 골프동호회원 약 48명이 참가한 가운데 친선골

프대회를 개최했다. 운동후 참가자 모두는 골프하우스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시상과 경품추첨 등을 통해 친목을 다졌다.//

평택지회

평택지회(지회장 왕관현)는 9월 13일 월례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에게 추석연휴를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전달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세대교체인가, 세대협업인가?

윤은기 (예 중위, 학사 70기, 공군전우회 정책자문위원)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라. 10대 20대 젊은 영웅들이다. 경기 기량도 뛰어나지만 인터뷰하는 모습이 당당하고 내공이 느껴진다. 신세대 선수와 기성세대 코치진이 멋진 협업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초고속의 시대다. 신문명 주기도 단축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도 조만간 막을 내릴 것이다.

신문명은 신기술을 중심으로 가치관 생활양식 경영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산업혁명은 전기가 가져왔고 정보혁명은 컴퓨터기술이 가져왔고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이 연결과 융합창조를 이끌어 왔다. 다음 신문명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이끌 것이다.

신문명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인재들이 나타난다. 신기술을 잘 다루는 젊은이들이다. 태어나자마자 컴퓨터로 게임하고 소통하고 학습한 세대가 MZ세대다. 이들이 지금 직장에서 핵심인재다. 그 이전 세대는 점점 밀려나게 된다. 문명이 전환될 때마다 신인재가 나타나고 기성세대는 신기술에서 한단계씩 밀려나게 된다.

세대교체를 해야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신문명 주기가 30년 이상일 때는 청년 중년때 일하고 노년에 은퇴하면 됐는데 이제는 20년 이내로 단축되니까 한창 나이에 밀려나는 것이다. 지금 직장에서는 '이재용 가이드 라인'이라는 게 있다.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나이가 퇴출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의 나이는 올해 56세다. 실제로 대기업을 살펴보면 50대는 CEO나 임원급이고 40대는 팀장급, 30대가 실무진이다. 공직자는 60세가 정년이다.

50대 중후반의 나이면 그야말로 한창 일할 나이이다. 게다가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 건강백세를 추구하는 세상이다.

50대 후반부터 직장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재래식 자영업이 대부분이다. 식당 커피점 편의점 배달업 등이 수없이 늘어나는 이유다. 수많은 직장에서 50대들이 쫓겨나오니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제 '세대교체' 대신 '세대협업'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세대교체는 구세대가 신세대로 바뀌는 것이다. 세대협업은 구세대와 신세대가 서로 강점을 합치고 약점을 보완하며 일하는 것이다. 신세대는 컴퓨터 인공지능 데이터 정보 등 신기술 역량이 뛰어나다. 반면에 기성세대는 신기술은 취약하지만 종합판단력, 인맥, 신용, 평판등의 역량과 자산이 있다. 서로 다른 강약점이 있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서로 도우며 일하는게 세대협업이다.

세대협업을 잘하려면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첫째, 소통과 공감력이 있어야 한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수평적 사고를 지닌다. 요즘은 나이가 계급이 아니다. 장유유서의 수직적 문화를 벗어나 유연한 관계설정을 해야 한다.

셋째, 서로 배운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AR VR 로봇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은 젊은이들이 더 잘한다. 종합판단, 리스크관리 등은 경험에서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더 잘한다. 서로 배워야 함께 성장한다.

넷째, 리버스멘토링에 진심을 가져라. 신상품이 성능과 디자인이 더 좋은 것은 알면서 신인재가 더 막강한 건 외면하면 기성세대는 곧바로 끈대가 된다. '젊은 멘토 나이 든 멘티'가 새로운 살길이다.

얼마전 선배에게 들은 말이 의미심장하다. "이제 나이들었다고 이곳저곳에서 물러가라니 서글프구먼."

"나는 젊어봤지만 너희는 늙어봤나?"

이 분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요 자긍심도 강한 분이다. 연세는 드셨지만 건강도 좋으시다. 사회활동 경력도 화려한 분이다.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렸다.

"선배님, 세상이 뒤집어졌으니 어찌겠습니까? 저는 매일 제자들에게 배우고, 후배들에게 배우고, 자식들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不恥下問이 제가 사는 길입니다."

협업을 연구하고 강의한지도 10여년이 지났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기업끼리의 협업뿐만 아니라 세대간 협업이 아닐까? 무리한 '세대교체'보다 '세대협업'을 해야 개인도 살고 기업도 살고 사회도 상생이 가능해질 것이다.//

년 이스라엘 아이언 돔 공습상황을 보고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관점을 피력하여 본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정권이다. 대한민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통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북한 주민과 분리하여 속아내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북한 인구는 2,500만 여명이다. 이 중 900만 명이 가까운 수가 북한군이다. GOP지역에 4개 군단 70만 여명이 전진 배치돼 있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300여 기로 공격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99% 막아냈다. 단지 한 발이 군 기지 인근에 떨어져 어린아이가 다쳤을 뿐이라고 발표했다. 거의 완벽하게 공중 공격을 막아낸 아이언 돔(Iron Dome)이란 대체 어떤 무기일까.

1990년대 레바논에 기반을 둔 헤즈볼라가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도입한 로켓포로 이스라엘을 수시 공격했다. 이러한 로켓포 공격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방산 업체 라파엘이 아이언 돔이라는 방공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주로 70Km이내 거리에서 로켓을 막아내기 위한 요구에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4월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을 최초로 요격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90% 요격 성공률이라는 개발요구를 충족시켰다.

이 시스템은 표적 탐지용 레이더와 탐지된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 그리고 이런 탐지와 요격은 자동으로 처리하는 컴퓨터 장치로 구성된다.

이보다 넓은 영역을 방어하는 시스템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개발해 2017년 도입한 '다윗의 돌팔매(David's Sling)'로, 중장거리 미사일과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공격을 막는다.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 외 최상단에 보다 멀리서 오는 미사일 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애로(Arrow-화살)'가 있다.

이란·이라크 등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1980년대 중반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IAI)이 애로 개발을 본격화했다. 1990년대 들어 미 보잉사가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시행착오를 거쳐 1994년부터 개발한 더 가볍고 빠른 '애로-2'를 2000년대를 들어 실전 배치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대기권 밖(고도100Km 이상)에서까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애로-3'도 개발 중이다. 요격 고도가 최고 150Km인 미군의 공중방어시스템 사드

(THAAD)에 빗대 '이스라엘판 사드'로도 불린다.

이란의 드론을 격추하는 데는 미국과 영국, 요르단 등 우방국들의 전투기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이란은 이번 이스라엘 공격 시도에 이란제 드론인 사헤드-136을 투입했다고 알려졌다. 이 대형 드론은 저렴하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고 시속이 185Km정도로 통상적인 군용 드론(시속 400Km이상)보다 속도가 느린 편이라 요격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기준 이스라엘 전역에 10개의 아이언 돔 포대가 배치됐고, 각 포대에는 20기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4개의 발사대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방공망은 현재 10~50Km 중 고도에서 요격하는 체제를 완비하고 있다. 방사포들의 공격을 막기 위한 저고도 요격과 탄도탄 요격을 위한 고고도 요격체계는 개발 중에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란이 최근 무인기와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도 대남도발을 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우리군은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4월16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란과 유사한 공격을 하는 경우에 대비해 우리군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의 혼합 공격을 탐지 및 요격 할 수 있는 능력과 유사시 압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나아가서 우리군은 앞으로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개발을 가속화해 더 강력한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공격)양상에 대비해서 저희가 한국형 구축체계로 개발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LAMD는 2020년대 후반 군에 전력화 될 방어 시스템으로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린다.

한국형 3축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시 적 지휘부 등을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등으로 구성된다.//

위풍당당한 군대가 그림다

황태인 (예 중위, 학사 70기, ㈜토브넷 회장)



군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위풍당당(威風堂堂)'이다. 위풍당당의 사전적 의미는 풍채나 기세가 위엄 있고 떳떳하다는 뜻이다.

군대는 국가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특수 집단이다.

필자가 군에 입대한 것은 대학 졸업 후 공군학사장교로 공군 소위로 임관하면서부터다. 임관 후 첫 보직을 공군전투비행단 통신중대장으로 부임해 공군 전투비행기의 이착륙을 유도하는 통신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임무를 맡았다. 통신중대장 임무를

마치고 공군사관학교 전자공학과 교관으로 전속 명령을 받고 공군사관생도들에게 전자회로 등 전공 과목을 가르치다 공군중위로 전역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투조종사들의 애국심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다. 공군사관생도들은 이른 새벽부터 생도전대에서 고된 훈련을 마치고 아침 일과가 시작되면 등교해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수강한다. 그들이 4년 교육을 마치고 공군 소위로 임관할 때면 조국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는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충만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공산전제주의의 북한 김정은 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국이라고 공언하며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만

국방부, "북(北) 탄도미사일 등 혼합공격시 탐지, 요격할 능력갖춰"

김만조 (예 중령, 학사 70기, 국방전우신문 사장)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2022 국방백서 39쪽에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하고, 사이버 공격과 무력도발을 빈번히 감행하고 있다. 특히, 핵 선제사용을 시사하는 핵 정책을 법제화하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이남지역으로 미사일 도

발을 자행하는 등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국군의 분명한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13일 이란 미사일 99% 막아